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03위 성인

### 성녀 이 아가타 (1824-1840)

동정 순교자 이 아가타는 이광현과 권희(權喜)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모범을 따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일찍부터 동정을 지킬 결심을 하였다.

이 아가타는 기해박해 초인 1839년 4월 7일,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에서 혹형과 고문을 당했다. 이후 형조로 이송되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포청으로 돌려보내졌다. 포청에서는 부모가 배교한 것으로 속여 그를 압박하였으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옥에서 만난 김 데레사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을 지켰다. 옥에 갇힌 9개월 동안 곤장 390대를 맞은 그는 1840년 1월 9일, 김 데레사와 함께 포청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 17세였다.

성화\_김교만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사순 제3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5(24), 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20, 1-17 (또는 20, 1-3.7-8.12-17)

화답송 시편 19(18), 8.9.10.11 (◎ 요한 6, 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 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 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1코린 1, 22-25

복음 환호송 요한 3, 16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 13-25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안식일, 계약의 표징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는 키루스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론 유배

안식일은 우리 인류에게 정기적으로 휴식을 선사하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또한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의 만아들로 선택되었음(탈출 4,22)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 아래에서 주님과 계약을 맺을 때, 안식일을 계약의 표징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탈출 31,13).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像)으로 구현하여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신상 없이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떠올리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 규정이 종종 우상숭배 금령과 나란히 나옵니다(레위 19,3-4; 26,1-2 등).

그런데 흥미롭게도 탈출 20,1-17과 신명 5,6-21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탈출 20,11에서는 천지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한 반면, 신명 5,15에서는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어떻게 이집트 탈출 사건과 연결된 것일까요?

아마도 신명기 저자는 옛세 동안 ‘일하고’ 이렛날 ‘쉬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시고 가나안에 ‘안착’하게 하신 일(여호 22,4; 23,1 등)을 떠올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집트 탈출은 이스

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시켜준 사건이고, 천지창조는 세상을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두 탄생이 안식일을 매개로 연결된 셈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으로써 창조 질서 보전에 참여할 수 있고, 안식일을 깨면 창조 질서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예레 17,19-27 등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내용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면, 그들 역시 자기 자리인 고향에서 쫓겨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 4,23-26에서는 그런 재앙을 ‘땅이 불모로 변하고 하늘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 곧 태초의 혼돈(창세 1,2)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과 계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예언자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 기원전 6세기에 멸망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의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에제 11,16). 왜냐하면, 나라는 사라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을지라도 안식일의 표징은 여전히 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가 끝나 시온 귀환이 이루어진 뒤엔 멸망의 원인을 반성하며 안식일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한 나머지,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까다로운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이는 계약 불순종으로 멸망했던 기억을 간직한 그들이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① - 인간관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회칙 「모든 형제들」 제2장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내용을 되새겨봅니다. 첫째, 가톨릭 사회 가르침(교리)은 복음화 사명 수행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도구입니다. 복음화 사명에는 인간 구원뿐 아니라 사회 쇄신이 포함되며, 사회 현안(懸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수반됩니다. 세상 안에서 인류 구원의 표지와 도구인 교회는 인류의 사회 현안 해결 노력에 비켜서 있을 수 없습니다(「복음의 기쁨」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 참조).

둘째, 하지만 교회는 사회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진 않습니다. 그 대신 사회 교리를 통하여 성찰 원리, 판단 기준, 행동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안내합니다. 또한 사회 현안의 해결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모범을 보이도록 격려하고 인도합니다. 전근대(前近代) 신분 계급사회의 ‘평민’과 달리, 오늘날의 ‘시민’은 사회 현안의 해결에 있어 저마다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톨릭교회는 당대 사회 현안을 ① 성경과 그리스도 교 전승, ② 철학적 방법론과 통찰, ③ (인문, 사회, 자연의) 과학적 정보와 방법론, ④ 인류의 경험으로 성찰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길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 사회 교리는 형성되고 발전하며 축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완성의 현세 인간관계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경우처럼 자연적인 힘(力)의 불균형뿐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이의 경우처럼 정치·경제·문화 차원에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약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약자와 함께 성찰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사회적 약자 우선성’ 또는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 하는데, 이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핵심입니다. 최근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가난은 현세적으로 무력(無力)하여 오직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의미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인간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암운들을 사회 현안으로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의 장(場)에 선의(善意)의 모든 이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안들이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무엇보다 거기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제2장에서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가 제시되는 이유는 그 비유가 선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어서 우리 대화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56항 참조). 🌐

## 내 서랍 속 작은 존재들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집안에 가구들이 빼곡 차 있어서 비좁은 공간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몸을 비스듬히 틀어 방 안으로 들어가니 거긴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곳곳을 채운 잡동사니들이 거슬렸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는 곳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놔두자니 짐스럽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서랍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수납장을 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날 잡아서 정리해야겠거니 하고 넣어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참신한 물건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비좁고 캄캄한 서랍 속에서 주인이 불러 주기만을 바라던 잡동사니들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손가락 끝으로 잡아서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클립이나 압정 같은 것부터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를 상분들이 한 움큼이나 있었습니다. 서랍 두 개를 정리하다 보니 하루가 또 흘렀습니다.

주방과 안방 서랍까지 합하면 총 15개,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만에 치워버렸을 겁니다. 한 번에 여러 일에 집중하며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습관이 되어 버린 거지요. 워낙 분주하기도 했지만, 성격상 일을 남겨두거나 미루는 걸 불편해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던 방송작가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 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며 행복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닌데 서두

를 거 뭐 있나 싶었지요. 어릴 적, 마당에서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정서적 안정감도 맛보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발밑의 작은 것과 평범함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뭔가 특별하고 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여, 웬지 커 보이거나 특별하거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서랍 하나를 열 때마다,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들이 절로 나누어졌습니다. 너무 잘 둔 덕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20단짜리 목주가 작은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귀한 넥타이핀이 잡동사니 속에서 나왔습니다. 100여 권의 책을 버리던 중, 책 안에서 20만 원 비자금 봉투가 출몰했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오래전, 지인 수녀님이 보내주신 손 카드가 나왔는데 ‘작은 가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가정 형편마저 어려울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이 어찌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서랍에도 이렇듯 작은 존재들이 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작은 길의 성녀 소화 테레사께서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사람에게서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빠져나갈 수 있지요. 큰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심사숙고하며 기도하거나 자신의 덕행으로 모든 것을 쉽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아주 작은 사람들은 큰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리지외의 성녀 아기 예수의 테레사께 드리는 9일 기도」〈첫째 날(작은 존재)〉中). ☺



교구  
소식

**제11차 신앙 글쓰기 <함께 쓰는 기쁨>**

매주 한 편의 글을 쓰면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3/13~4/24, 매주(수) 13:00~14:30 [총 6회]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고양시 장항동)

회비 12만원 (총 6회) / 선착순 6명 **문의** 031-850-1433 홍보국



**2024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추가 모집**

의정부본원 저녁반 화,목 19:30~21:40 신앙교육원

남양주본원 오후반 수,금 14:00~16:10 지금동성당

과정 2년제 4학기, 매학기 4과목 (3개월 수업) **등록금** 학기당 35만원 (분납 가능)

신청 3/4(월)까지, 홈페이지 참조 (포털 → '신앙교육원' 검색)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신앙교육원

**[전시] 의정부가톨릭미술가회 5인 기획전 - 신부님의 책갈피**

일시 3/9(토)~29(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카카오톡 @g\_pyeongwha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일시 3/14(목), 4/11(목), 5/9(목) 20시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주제 멘토가 되는 지혜의 길을 고전에서 배우다 **회비** 3만원 (현장 접수)

교재 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이준성 옮김, 아카넷, 2023

2. 프랑수아 드 페늘롱, <멘토의 탄생>, 강미란 옮김, 푸르메, 2012

문의 031-908-6811 백석동 성당 사무실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시복을 위한 은혜의 밤**

일시 3/9(토) 17시 **장소** 황사영 순교순례지 (영성관)

1부 한국 103위 순교성인, 124위 복자 호칭기도 / 2부 특강 (성가의 은혜) / 3부 미사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전신자 성경 읽기 3/3(주일)~9(토) : 루카 7,1-23



3/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사회  
사목  
활동

**③ 지역아동사목위원회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역아동사목위원회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6.18) 명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힘든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이 돌보고 있습니다. 동두천 가톨릭 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계 이주 배경 어린이들을 돌보고, 진접 도담도담 공부방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린이 청소년 밥집 및 케어 시설인 포이마이노를 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사목위원회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및 봉사 문의 010-3946-9018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4-497757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찬양과 치유 기도회  
일시: 3/8(금) 21시~24:30 / 장소: 마두동 성당  
문의: 010-2127-0032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 완독: 3/16(토)~24(주일), 4/19(금)~27(토),  
5/17(금)~25(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4/12(금)~14(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골롬반 사순 청년 피정**

일시: 3/9(토) 10시~17시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9세 신자  
접수: 3/6(수)까지, bit.ly/ColRetreat2403  
회비: 1만원 (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문의: 010-3817-0567 (문자)

**렉시오 디비나 피정**

일시: 3/27(수) 15시 ~ 31(주일) 점심 [4박 5일]  
장소: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양주시)  
회비: 30만원  
문의: 010-5230-2986  
cafe.naver.com/monteoliveto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3/5(화) 허보록 필립보 신부  
3/12(화) 양종석 베다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3/22(금)~24(주일) [2박 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3/9(토) 10시 풍동 성당  
3/16(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피정**

날짜: 3/10(주일), 강의와 성체조배  
장소: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미아리본원  
문의: 010-9555-0630, 02-984-4801

**일일피정 및 3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 (중식 무료)  
일시: 3/4(월) 10시~16시  
3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일시: 3/9(토) 12시~17:30, 미사안수 (중식 무료)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 피정: 매월 첫 금요일  
4/5(금) 10시~15:30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내 300주년 기념 경당  
사순 피정: 3/5, 12, 19 매주(화)  
대침묵 피정: 3/8(금)~10(주일) [2박 3일]  
단식 피정: 3/20(수)~24(주일) [4박 5일]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김용열 신부 사순 대피정**

일시: 3/4(월) 09:30~17시 / 회비 없음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문의: 010-6245-6096 서울대학교북방선교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3/15(금)~18(월), 4/5(금)~8(월), 5/17(금)~20(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나의 눈은 소경입니다. 영적소경을 고치는 방법은?  
일시: 3/9(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매일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3/5(화), 4/2(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교육 · 모집 ▶▶**

**제41기 복음화학교 개강**

교 구 청: 3/13(수) 11시, 010-7344-1272  
옥정성당: 3/13(수) 20시, 010-8966-6525  
덕소성당: 3/14(목) 11시, 010-8966-6525

**향동 성당 사무직(계약직) 모집**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시설 관리  
근무: 주 20~30시간 협의  
접수: 3/15(금)까지 우편 접수  
자세한 내용 교구 홈페이지 참조

**나이 둘, 새로운 소명 -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그리스도 가치로 지나온 삶을 성찰, 새로운 소명 찾기  
일정: 4/11(목)~5/11(토) 300만원  
6/3(월)~17(월) 150만원  
장소: 강원도 홍천 예수회 공동체  
대상: 60세 이상 평신도 (매회 8명)  
예금처: 우리 1005-904-598156 한국예수회  
문의: 010-7451-9707 최대제 신부  
facebook.com/groups/newvocation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오디션: 3/10(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www.logoschoir.org 입단 문의 참조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3/31(주일)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DIocese OF UIJEONGBU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입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3/9(토) 1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4/7(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부	010-8715-2846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성심수녀회	3/16(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성심수녀회

교황청 꿈나무 캠프

일시: 8/9(금)~11(주일) [2박 3일]
장소: 서산 웨이크업 국제청소년센터
대상: 초등 3~6학년 (선착순 70명)
회비: 15만원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원 별도)
문의: 02-2268-7103, www.pmsk.net

파주시장에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땅끝 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청년 제자 훈련

일시: 3/16(토) 14시 오리엔테이션 [1년 과정]
장소: 합정동 ICPE선교회 센터
문의: 010-7548-6664

청년 엠마우스 - 성심수녀회

내용: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 찾기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방법: 월 1회 온라인 영성 강의 및 개별 영적 동반
문의: 010-2059-9633

신앙생활에 관한 비대면 신앙교육 - ZOOM

일시: 3/13(수) 20시 [10주간]
교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자 직강)
신청: chusimon60@gmail.com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입)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야곰 전국 성지순례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과 성지순례
고토 성지: 4/1(월)~5(금), 북해도: 6/3(월)~7(금)
아키타: 9/2(월)~6(금)
이브스카: 10/28(월)~11/1(금)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3/10(주일)~12(화), 3/16(토)~18(월),
5/14(화)~16(목)
성지순례: 4/13(토)~16(화), 4/25(목)~28(주일),
5/2(목)~5(주일), 5/8(수)~11(토),
5/19(주일)~22(수)
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기원 및 현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부, 일반부
방법: www.martyrs.or.kr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4/28(주일)까지
후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가톨릭출판사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문의: 02-2269-0413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4/15(월)~19(금) 필리핀 마닐라 (140만원)
4/20(토)~25(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5/17(금)~29(수)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6/27(목)~7/6(토) 동부지중해크루즈 성지순례 (54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4/15(월)~26(금) 루르드, 스페인, 파티마 (505만원)
문의: 010-7374-3217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7(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15(월) 메주고리에, 발칸3국, 헝가리 (12일)
4/23(화)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12(주일)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13(월) 동유럽 5개국 (12일)
5/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6/3(월) 중부 유럽 4개국 수도원 순례 (11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5/13(월)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13일, 469만원)
5/13(월)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139만원)
5/27(월) 다낭 성모님 발현지 (155만원)
5/2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9만원)
6/3(월) 알프스와 동유럽 (11일, 4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4/1(월)~3(수), 4/11(목)~13(토),
4/16(화)~18(목)
추자도 포함: 3/23(토)~26(화), 4/6(토)~9(화),
4/28(주일)~5/1(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시간: 10시~16시(월~금) / 문의: 02-990-9366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탐방

국내: 4/13(토)~15(월) 수도원, 대구
5/4(토)~7(화) 수도원, 부산, 마산
서울 명동 출발 (대형 버스)
해외: 5/15(수)~27(화) 바티칸, 독일수도원, 이탈리아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교육

제15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기간: 3/16~10/19, 매주(토)
수업료: 17만원 (실습발 분양비 포함)
접수: 3/8(금)까지 / 인원: 20명
문의: 031-850-1492 환경농촌사목위원회

모임

에미신학생 모임

고등부
일시: 3/10(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경당
중등부
일시: 3/17(주일) 10시~12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 주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길, 성전(聖傳)과 성경(聖經)

우리는 지난 주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마르 9,2-10)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9,7)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 역시 그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성전’(聖傳)과 ‘성경’(聖經)입니다.

성전은 교회 안에서 전승(傳承)된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하느님 말씀’입니다. 이 둘은 교회가 간직한 신앙의 유산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성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고 배운 것과 주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바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고 실천된 주님의 뜻이 그 가르침 안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7성사와 전례를 비롯하여 하느님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고 신앙을 키우는 모든 교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전과 성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성전과 성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은 성전으로 온전히 전달된다. (...) 따라서 교회는 오로지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계시현장 9항).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성전’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13항 참조).

한편, 성경과 성전에 담긴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한과 임무는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권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그분과 일치체를 이루고 있는 주교님들에게 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중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은 바로 이 점을 말해줍니다.

신앙은 언제나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머니요 스승이신 교회가 보존하고 전해주는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앙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1>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전례**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 3월 본당 선종 교우를 위한 미사

일 시: 3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대사 미사

일 시: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3월 03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3월 10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본당공지**

■ 3월 봉성체

일 시: 3월7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사제 연례 피정

본당 신부님께서 3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교구 사제 연례 피정에 참석하십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행주 성당 레지오 1,000차 모임

행주 성당 레지오 사랑하울 어머니pr이 2월 26일에 1,000차 주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같이 축하하여 주시고 기도중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정성 (2월 19일 ~ 2월 25일)**

■ 교무금, 주일헌금, 2차헌금

교 무 금	6 건	480,000원
주 일 헌 금		1,042,000원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585,000원

■ 감사헌금

오승훈	300,000원	이동준	200,000원
김미숙	30,000원		

- 복음 말씀 -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